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종교 소수자 위한 공무원 통합 프로그램 출범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정부가 종교 소수자들의 공공 부문 진출을 돕기 위해 새로운 통합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했다고 1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독교인을 비롯한 비이슬람 청년들이 파키스탄 공무원 조직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키스탄 고위 공직자 양성기관인 민간공무원아카데미(CSA)는 이들을 위해 최초로 한 달간 기숙형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교육과정엔 편자브·신드·카이버파크툽와 발루치스탄 4개 주가 추천한 45명이 참여하며, 1인당 20만 루피를 각 주가 부담한다.

프로그램은 ▲전국 14개 대학 순회 설명회 ▲CSS 대비 핵심 역량 훈련(1개월) ▲2026년 4개월 집중 준비 등 3단계로 구성돼 중앙고등공무원시험(CSS) 합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동훈련 책임자 사비르 아크바르 자이드는 “5% 소수자 할당에도 실제 공직 비율은 미미하다”며 제도 장벽을 지적했다.

2023년 특별 CSS 시험에서 121석 중 합격은 16명, 그중 기독교인은 7명에 그쳤다. 연방 법무·인권부 장관 아잠 나지르 타라르는 헌법 제36조를 인용, “국기의 흰색처럼 소수자 권리가 행동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령 상한을 35세로 늘리고 ‘소수자’ 대신 ‘비이슬람’ 용어를 쓰자고 제안했다.

파키스탄 성공회 라호르 교구의 나딤 카르만 주교는 본 프로그램이 특히 편자브주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회는 이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젊은 신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 2억4천만 인구 중 무슬림이 96.35%, 힌두교 1.61%, 기독교 1.37%, 기타 종교는 1% 미만이다. 정부는 종교 소수자 청년에게 ‘국가의 흰색’이 단순 상징이 아닌 실질적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0년간 기독교인·힌두교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빈발해왔다.

관찰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정보·재정 격차를 해소해 소수자의 공직 진입 경로를 넓힐 시험대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 성공 여부는 2026년 3단계 과정과 이후 CSS 합격률 상승이 증명할 예정이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26:42,45)

하나님,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비이슬람 청년들에게 공무원의 길을 열어주사 그동안 이들에게 자행되어왔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작은 변화를 일으키심에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따라 순종한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모든 종족이 보는 앞에서 주의 일하심을 나타내사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모두가 주목하게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신 이 기회가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통로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굳어 있는 심령 위에 옛적부터 맺은 주의 언약이 선포되고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 ‘세계 최고령’ 92세 카메룬 대통령, “임기 50년 채올래…한 번만 더”

지난 1982년부터 40년 넘게 카메룬을 장기집권한 폴 비야(92) 대통령이 오는 10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8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2032년 99세까지 재임하게 된다. 14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비야 대통령은 최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섬기기로 결심했다”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카메룬은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을 폐지했고 이에 따라 폴 비야는 무제한 출마가 가능한 상태다. 카메룬은 폴 비야 대통령의 장기집권 아래 오랜 기간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가 유지돼 왔으며, 이로 인해 부정부패와 인권 탄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3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카메룬은 180개국 중 142위로, 심각한 부패 국가로 분류됐으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언론 자유 탄압, 시위 진압, 야당 지도자 체포 등으로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프랑스어권 중심의 정부 운영에 반발해 영어권 지역에서는 분리 독립 요구와 무장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는 단지 정치적 야당만이 아니라 지역 갈등 형태로도 이어지고 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14-15)

하나님,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며, 자신의 권력과 탐심을 좇아 또다시 노령의 몸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폴 비야를 꾸짖어 주십시오. 부정부패와 분열, 인권·언론 탄압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카메룬을 긍휼히 여기사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백성들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진정한 겸손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본을 보이는 카메룬교회를 통해 더욱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 러, VPN 우회해 금지 사이트 검색만 해도 처벌 추진

러시아가 인터넷에서 정부가 금지한 자료를 단순 검색하거나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러시아 RBC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극단주의적’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검색하거나 접근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위반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정부가 차단한 웹사이트에 접속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원 국가건설입법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명백히 극단주의적 자료를 고의로 검색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접근 제한 콘텐츠를 우회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사용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5,000 루블(약 5-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VPN 광고를 배포할 경우에도 일반 시민은 5-8만 루블(약 89-142만 원), 공직자는 8-15만 루블(약 142-266만 원), 법인은 20-50만 루블(약 355-889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골로새서 4:2-3)

하나님, 행정위반법 개정안으로 언론을 강력히 통제하며 정부가 원치 않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해 더욱 국민들을 향한 강경한 통치를 행하려는 러시아를 주께 고합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는 이 나라에 온라인을 통한 선교의 문이 개정법으로 인해 닫히지 않도록 철회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 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일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 남겨두신 선교사들과 몸 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영국을 다시 거룩하게”...한영 기독교인 연합 부흥 집회, 8월 런던서 개최**



영국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한국과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대규모 부흥 집회가 오는 8월 런던에서 열린다. “영국을 다시 거룩하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행사에는 한국에서 약 400명의 성도들이 초청됐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총 300여 명의 참석이 이미 확정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기도 단체인 ‘에스더기 도운동’과 런던의 ‘셰퍼드교회’(London Shepherd Church)가 공동 주최하고, 영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이 후원한다. 주최 측은 “금식 이후에는 정통 한국식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컨선의 대표이자 크리스천 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의 책임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도 이번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윌리엄스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백만 명이 모인 거리 집회에서 “국가의 도덕·영적 상태는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를 비추는 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있다. 이는 단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도시,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컨선은 이번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우리는 영국의 부흥을 위해 세대와 지역, 교단을 초월해 함께 기도할 것이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집회와 유사한 집회인 ‘미국을 다시 거룩하게’가 지난해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바 있다. 주최 측은 이번 영국 집회의 목적이 국가적 부흥을 일으키고, 말 그대로 ‘영국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북한을 위한 특별 기도팀도 운영된다. 북한은 오픈도어 선교회의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최악의 박해 국가로 꾸준히 선정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세아 6:3,6)

하나님, 주를 향한 갈망을 영국 교회 안에 품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이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부흥 집회를 한국 기독교인들과 연합하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회를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 영적, 도덕적으로 메말라 있는 나라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먼저 보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이 나라를 향한 주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주의 영광이 모든 세대 위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열방을 품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 부르키나파소, 선관위 폐지 법안 통과…내무부가 선거 관리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군정이 독립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연합뉴스가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군정은 16일 밤 선관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앞으로 내무부가 선거 관리를 하게 된다고 국영 방송사 RTB가 전했다. 에밀 제르보 내무장관은 높은 운영 비용으로 선관위를 해산했다며 “선거에 대한 주권적 통제 강화와 외국 영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아프리카 사헬의 심장부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는 영토의 40%가 정부의 통제 밖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2015년부터 이슬람 급진세력과 연계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준동이 이어져 지금까지 약 2만 명이 숨지고 200만 명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두 차례의 쿠데타 끝에 2022년 9월 당시 육군 대위 이브라힘 트라오레를 수반으로 하는 군정이 권력을 장악했고, 10월 트라오레가 임시 대통령에 취임하며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를 2024년 7월로 제시했으나 이를 연기했다. 지난해 5월 소집한 국민대회에서 ‘7월 2일부터 60개월(5년) 이내에 민정으로 전환한다’는 헌장을 채택함에 따라 최장 2029년 7월까지 트라오레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시편 37:35-37)

하나님, 약속했던 민정 이양을 연기한 군정이 선관위를 폐지하고 정부의 직속 기관인 내무부가 선거를 관리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이 우려되는 부르키나파소를 의탁드립니다. 지금도 분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권력 유지에 초점을 맞춰 외국 영향력까지 제한한 군정을 꾸짖어 주시고 자신의 세력이 사라져 없어질 것과 같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 땅이 주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 정직한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발견하게 하셔서 모든 불의와 부정이 파하여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높여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 영국성공회, 성직자의 ‘성(性) 관련 문서 동의 의무’ 폐지

영국성공회가 1991년 제정된 성(性) 관련 문서 ‘인간 성 문제(Issues in Human Sexuality)’에 대한 성직 후보자의 동의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교단 내 복음주의 진영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안건은 15일 열린 총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사우스윅 교구의 메이 크리스티 목사와 평신도 폴 와델 씨가 발의했다. 해당 문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자의 성직 서품을 금지하고, 모든 성직자는 결혼 상태이거나 독신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해당 문서는 성직 지망자 평가 과정에서 더 이상 필수 기준이 아니게 된다. 성공회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교리나 정관을 바꾸는 것은 아니며, 성직 서품에 있어 신학적 견고함과 목회적 민감성을 동시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결혼은 남녀 간 결합이라는 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영국성공회 복음주의협의회(CEEC) 대표 존 더넷 목사는 이번 수정안이 교회의 교리나 정관, 공식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감사한다. 그러나 ‘사랑과 신앙 안에서의 삶’ 과정은 여전히 성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성공회적 이해와 충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가 실제로 중요한 본질적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임이요 그도 범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요한1서 3:7,9)

하나님, 동성애자의 성직 서품을 금지한다는 동의 의무를 폐지해 동성애자도 성직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영국성공회의 행보에 애통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서야 할 성직자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벗어난 성공회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또한 영국 성도들을 깨우사 진리를 벗어난 타협과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주의 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약속의 씨와 같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가 세워지게 하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도다”
성경 인용으로 기소됐던 핀란드 전 장관, 동성결혼 허용한 교회 떠날 수도 있어



로마서를 인용한 온라인 게시물로 인해 수년간의 법적 싸움을 벌였던 핀란드 정부의 전 장관이었던 파이비 래파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이 동성애에 대한 핀란드 루터교회의 입장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라사넨은 6년 전 자신의 교단이 동성애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당시 트위터(현 X)에 로마서 1장 24-27절을 인용하며 교회의 결정이 성경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라사넨은 핀란드 정부로부터 ‘혐오 조장’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라사넨은 최근 친동성애 노선을 계속 따르는 교회의 행보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사넨은 기독교 매체 ‘우우시 티에(Uusi Tie)’에 글을 기고하며 라푸아 교구의 마티 살로맥키 주교가 교회에서의 동성결혼식 및 축복식을 허용한 결정을 “마지막 못을 박은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아마도 내년에는 (선택적) 교회세를 내지 않을 것 같다”며 “교회가 유산을 탕진한 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새로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국교회가 잃어버린 신앙고백 교회를 이어갈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일까? 지혜와 결정의 시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합(ADF International)은 그녀의 사건에 대해 “단순한 법적 싸움 그 이상”이라며 “이것은 유럽이 민주주의 가치를 얼마나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출처: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디모데전서 6:11-12)

하나님, 세속 인본주의에 물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인생들을 미혹하여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핀란드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정부의 부정과 죄악을 바로 잡아야 할 교회가 교만하고 부패하여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악행을 책망하시고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라사넨과 같이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증인의 외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 우크라이나, 부패 감시기구 권한 약화 법안 통과…전국 반대 시위

우크라이나에서 부패 감시기구 권한을 약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고 연합뉴스가 영국 텔레그래프를 인용해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반부패 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전문검찰청(SAPO)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검찰총장은 국가반부패국 수사를 지휘하거나 국가반부패국 밖의 기관에 지정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반부패국은 기소권 없는 수사기관으로 2014년에, 반부패전문검찰청은 국가반부패국의 지원 조직으로 2015년 설립됐다.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의 간첩 혐의를 받는 국가반부패국 관계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없어야 한다.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이다. 시위대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라!”, “부패와 독재를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쟁을 구실로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잠언 11:5-6)

하나님, 러시아의 간섭을 막고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반부패 감시기구의 권한을 약화시켜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꾀하는 젤렌스키 정부를 꾸짖어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국민들의 외침에 정부가 귀 기울이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속히 전쟁이 종식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복음과 기도로 영혼을 섬기는 우크라이나 교회가 끝까지 이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곧게 하시고 진정한 공의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 슬로베니아, 조력자살 허용 법안 상원에서 거부권 행사

슬로베니아 하원에서 지난주 통과된 조력자살 허용 법안이 상원의 거부권 행사로 저지됐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슬로베니아 상원은 조력자살 허용 법안의 복잡한 철학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찬성 20표, 반대 9표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원에서 재검토하게 했다고 밝혔다. 슬로베니아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조력자살 관련 법 제정에 유권자의 55%가 찬성하며 해당 법안을 지난 18일 하원에서 투표해 찬성 50표, 반대 3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조력자살 허용 법안을 반대한 상원 의원들은 생명 존중의 신성함 훼손을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의식 있는 말기 환자가 참기 어려운 고통과 더 이상 적용할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조력자살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데살로니가전서 4:1)

하나님, 지난주 슬로베니아 하원에서 통과된 조력자살 허용 법안에 상원의 거부권 행사로 저지되어 주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하원으로 넘겨진 이 법안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주께 의탁하오니 죄로 무더진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사 진실과 공의로 나라를 섬기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따라 행하는 슬로베니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하여 이 땅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